

강기정 “더 단단한 광주”... 김영록 “더 위대한 전남”

시·도지사 송신년 기자회견

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 회복
광주방문의 해...AI·미래차 주력
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확대
농수축산업·재생에너지·SOC 집중

강기정 광주시장이 “새해에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따뜻한 민생경제로, ‘당신 곁의 광주’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내년에는 ‘더 위대한 전남’을 비전으로, 눈부신 미래를 그려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시정 구상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민생경제 회복 예산 1082억원이 포함된 총 7조6000억원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집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1월 한 달 간 ‘상생카드 할인율 확대(기준 7%에서 10%)’ 운영하고, 모든 시민 대중교통 할인제인 ‘광주G-패스’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저출생 대응 예산 2818억원을 투입해 ‘출생아가정 상생카드’ 신규 지원 추진, ‘임산부가사돌봄 서비스’와 ‘긴급육아 이웃 돌봄’ 확대,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소상공인 아이돌봄’, ‘1인 여성 자영업자의 임신·출산 대체 인력비’도 새롭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1500억원→1700억원)하고, 중소기업대출이자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사업 등을 신규 추진한다.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2950억원→3000억원),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2650억원→2700억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스포츠 등 지역 강점을 살린 ‘광주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새해에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과 세

계인권도시포럼이 함께 열리고,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 디자인 비엔날레,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열리는 ‘축제의 해’이다. KIA 타이거즈, 광주FC를 통해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하고, 한강의 노벨상 도시 브랜드 강화 및 광주 G-페스타와 연결하는 전략으로 광주 방문의 해를 추진해 나간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실증 확산을 위한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 사업’(AI 2단계)을 본격 추진하고, 자율주행 성능평가 인증 기반 등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적화 토대 마련, 자율주행 실증 확대 및 신기술 고도화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또 미래 항공모빌리티 및 드론산업 육성 기반도 다져나갈 방침이다.

‘대·자·보 도시’도 본격화한다. 내년 도시철도2호선 1단계가 완공되고,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연구를 통해 철도와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해 나간다. 여기에 간선급행 BRT와 급행버스 도입, 도시철도 광천-상무선도 본격 시작한다.

김 지사도 이날 송·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더 위대한 전남’ 비전을 제시하며, ‘행복한 전남’, ‘기회의 전남’, ‘문화가 있는 전남’ 실현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분야별로 민생안정을 위해 23개 사업에 예비비 등 1185억원을 투입해 △3500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율 10%로 확대 △배 재배농가, 전복 양식어가, 김 가공업체 등 긴급경영안정 자금 91억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차세대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2034년까지 벤처·스타트업 기업 3000개,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300개, 상장 기업 30개까지 늘리는 333 프로젝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기 구축 등을 추진해 2026년까지 투자유치 30조원, 3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수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 관련기사 3면 최권범·오지현 기자



HAPPY NEW YEAR! 2025 광주 시민들이 26일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빅도어에 설치된 ‘HAPPY NEW YEAR! 2025’에서 미디어아트를 보며 새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민주,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오늘 표결

“내란 행위에 공모·목인·방조” 韓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담화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박성준 의원 등 170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한 대행이 국무총리로서와 권한대행으로서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며 탄핵 사유로 5가지를 꼽았다.

우선 비상계엄 당시 총리로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목인 또는 방조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탄핵안은 “피

소추자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목인,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윤 대통령 탄핵 이전의 ‘한동훈-한덕수 체제’(공동 국정운영 구상) 발표는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에는 국회가 요구한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한 점을 추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1시 35분 긴급 대

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추진이 현실화하면서 여야는 의결 정족수를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헌법 제 65조에 따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관련기사 6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남해외상설판매장

- 동남아시아** ONE MART
- 유럽** Sunrise Supermarket, K-Shop
- 미주** 한남 Buena Park, 한남 LA, 한남 Torrance, 한남 Del Amo, 한남 New Jersey
- 호주** FREEZIUM MARKET, SEOUL MART

▶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 골든하비는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골든하비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